가야문화 인도 기원과 불교문화 연관 조명

(사)가야문화진흥원, 제10회 국제학술대회 성료

4월 6일, 자현 스님 기조발제
'가야불교의 전래 경로' 고찰
쿠마르 학장은 파사석탑 주목
"인도 · 가야 간 문화교류 흔적"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 4월 6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개최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에서 자현 스님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고대 가야문화의 인도 기원성과 불교문화의 연관성을 조명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4월 6일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아시아 문화교류사 속 가야의 역할을 학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해공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 혜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전 이사장 도명 스님, 초대 이사장 인해 스님 등 승가 내빈과 문정수 전 부산시장, 양맹준 전 부산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발제는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 회장)이 맡아 가야불교의 전래 경로와 역사적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했다. 자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래는 단순히 중국을 통한 북방 경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가야를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와 초원 루트(유목 루트)를 통한 독자적인 불교 전래 경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국유사〉에 전하는 허황옥 설화와 파사석탑, 그리고 신라 진흥왕 대에 인도에서 전해진 재료로 조성한 황룡사 장육존상 등의 사례를 들어 "인도와 가야, 신라를 잇는 직접적인 불교 해상 교류의 실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중심의 불교사 해석에서 벗어나, 가야가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또 다른 교차점이자 인도와 한국을 잇는 중요한 매개였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쿠마르 학장(인도 뉴델리대)이 맡아, '파사석탑에 내재된 인도 예술적 요소'를 발표했다. 쿠마르 학장은 "파사석탑은 스투파 형식의 구조와 조형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허황옥 설화와 함께 인도와 가야 간 실제 문화교류의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탑에 나타난 연꽃, 트리라트나(삼보), 쌍어문 등 인도 불교미술의 대표 상징 요소들을 근거로 들며 "한국 불교문화의 기원을 중국 중심이 아닌 인도와의 직접적 연결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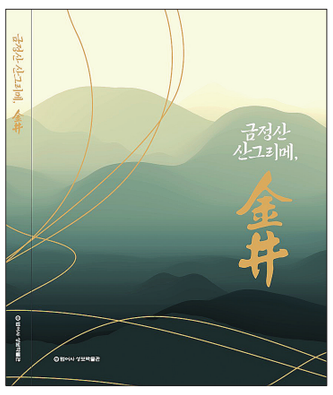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가야의 복식문화, 일본과의 고대 교류, 언어와 불교문화의 연관성 등 가야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문광희 동의대 명예교수는 가야의 '변(弁)'을 고대 머리 장식 문화의 원형으로 보고, 후대 금관으로 이어졌다는 복식사적 해석을 내놓았다. 히로세 부산대박물관 연구위원은 일본 규슈 지역의 가야계 유물들을 통해 한일 간 고대 교류 양상을 설명했다. 또 능현 스님(아리랑문화진흥원)은 범어와 타밀어, 한국어의 유사성을 들어 불교문화가 언어와 민속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앞서 해공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최초의 불교 전래와 더불어 가야문화는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을 지닌 문화로, 우리 민족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가야문화진흥원은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발간

금정산 · 범어사 중심 심층 고찰
역사 · 문화 정체성 학술적 조명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부산광역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정산과 범어사, 그리고 범어사가 위치한 부산 금정구 지역을 조명한 학술도록 〈금정산 산그리메, 금정(金井)〉을 최근 발간했다.〈사진〉

이번 도록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정산 산그리메, 金井' 특별전과 사진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정산의 유형, 무형, 자연유산과 금정구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지역사 전문가들의 논고도 담아 금정구를 가깝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정산과 범어사를 중심으로 '금정구'라는 지역 공간을 심층적으로 다룬 점도 눈에 띈다. 금정산 호국사찰로서 범어사의 창건과 승영사찰 국청사·해월사의 역사, 조선시대 동래부사와 고승들의 시문, 금정산성 관련 기록 등 금정구 일대에 얽힌 다양한 자료가 담겼다. 유청길 금정산성막걸리 대표가 소장한 1970년대 산성마을 사진과 사진가 문진우의 작품도 함께 수록돼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정오 스님은 발간사에서 "이번 도록이 금정산을 단순한 '산'이 아닌, 삶이 흐르는 지역 공간 '금정구'로서 바라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선조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며 후손들이 살아갈 금정산과 금정구의 역사·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사립박물관 지원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는 물론 부산 지역사를 다룬 도록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어린이용 그림책도 함께 선보이며 지역의 역사·문화를 세대 간에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한편, 함께 발간된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선물〉은 〈삼국유사〉를 모티브로 한 첫 그림책 〈금빛물고기의 비밀〉에 이은 두 번째 이야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사회 밝히는 주인공 되길"

30회 20회 10회 성만자 65명
영축장학금 스님 44명 3560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4월 2~4일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9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흔들림 없는 수행정진을 다짐했다.〈사진〉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전계대화상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갈마아사리는 전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각각 맡아 삼화상을 구성했다. 칠증사인 존증아사리에는 보탑천진, 노암법운, 보장영일, 심산법미, 고담종현, 혜림만초, 무문도암 스님이 함께해 계단을 증명했다.

30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한 회향식은 불공을 시작으로 △대종 5타 △개식 △삼보 예경 △거향찬 △삼사칠증사 등단 △영축장학금 수여 △보살계 성만패 및 기념메달 증정 △계첩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수계의식 △연비 △사리탑돌이 △회향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계율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많은 이들이 인연 따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법회를 계기로 불자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신심과 발심을 실천하며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비추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문했다.

보살계 성만 기념패는 올해 30회 성만자 4명, 25회 성만자 5명이 각각 받았다. 기념 메달은 20회 16명, 15회 12명, 10회 28명 등 총 65명의 불자가 수상했다.

이날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는 스님에게 영축장학금도 전달됐다.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10명, 학사과정 3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학림 24명, 승가대학 4명 등 44명의 스님에게 총 3560만원이 지원됐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이경순 일념장학회 제3대 이사장 취임

"청년 불자 양성에 지원 최선"
대학생 10명에 장학금도 전달



미래불교 인재 양성에 힘써온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새로운 이사장 취임으로 30년 전통의 장학사업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일념장학회는 이경순 영광문화예술원 원장을 제3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4월 8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묘광선원에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경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1995년 불심 돈독한 선배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일념장학회가 30여 년간 보시 공덕을 실천해 온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청년 불자들이 학업과 신행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초석을 다지고 자비심으로 장학회의 틀을 세워주신 선배 도반님들의 뜻을 잊지 않고, 전 임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장학사업이 잠시 위축됐지만, 지역 불자 대학생들이 불법을 공부하며 훌륭한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념장학회 지원금 800만원에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의 200만원을 더해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일념장학회는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가풍을 세운 경봉 선사를 찾아 불법을 공부하던 11명의 여성 불자들이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설악산 신흥사, 불기 2569년 봉축 점등

4월 4일, 속초광장···800명 동참
산불 피해 위로 · 속초 안녕 기원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4일 속초 속초광장(구 소방서 앞)에서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을 비롯해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이병선 속초시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영남 산불 피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이재민들의 조속한 회복과 속초시 발전과 시민 안녕을 함께 기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점등에 임하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굳건한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 우리가 봉축탑에 불을 밝히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 외부에 기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등식을 통해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열반으로 가는 길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용인시불교사암聯, 용인시와 간담회 개최

4월 4일, 용인시청서 일정 공유



새 회장단 구성을 완료한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호 스님, 대각사 주지)가 용인시와 첫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행사 계획을 공유했다.〈사진〉

4월 4일 용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용인시사암연합회 고문 자광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장)와 회장 정호 스님, 감사 월장 스님(백인사 주지) 등 임원진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호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시민들에게 삶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관내 사암 스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자광 대종사는 격려사에서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는 용인시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종교, 특히 불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교와 사찰이 130만 용인 시민의 삶 속에서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 스님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용인시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자비암,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서



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4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22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자비암 신도회의 후원과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스님들과 신도들이 동참해 호국영령의 극락왕생과 부산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자비암은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위령재를 매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받은 이들을 추모하고, 국가의 안녕을 함께 발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자관 스님은 "산불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위령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령대재와 함께 관음전 관세음보살 점안식도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구가족센터 확장···돌봄 거점 도약

4월 3일, 확장 개소식 개최



부산 금정구가족센터(센터장 김수현·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장)가 4월 3일 센터 3층 교육실에서 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확장 개소는 임산부, 이혼위기가정, 돌봄 공백 가정 등을 포용하고 돌봄의 중심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다.

행사에는 김수현 센터장을 비롯해 윤일현 금정구청장, 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원, 정윤철·김태연·양달막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수현 센터장은 "아이 돌봄, 다문화,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 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행복은 부나 지위가 아닌 건강한 가족에서 비롯된다"며 "금정구가족센터가 지역 가정의 화합과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